

보도자료

2010년 7월 14일(수)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네트워크정책국 인터넷정책과 홍진배 과장(☎750-2730)
인터넷정책과 박현선 주무관(☎750-2732) phsunny@kcc.go.kr**방통위,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결과 발표**

- 스마트폰 이용자 '이동중인 교통수단 안(77.0%)'에서 이용
-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루평균 약 1시간 인터넷 이용한다
- 모바일앱 평균 23.1개 설치, 9.1개 이용 / 유료 모바일앱 월평균 10,000원 이상 지출(약 3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스마트폰 이용자 1,5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이동전화와 PC, 인터넷이 결합된 '손안의 만능 상자'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삶의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증가되면서 스마트폰의 강력한 맞춤형 정보력과 이동성으로 무장한 '호모 모빌리스'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는 ▲스마트폰 이용현황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현황 ▲모바일앱 이용현황 ▲스마트폰 전용 정액요금제 이용현황 ▲스마트폰 보안인식 및 선결과제 등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다.

(만족도 효과) 스마트폰을 이용함으로써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또는 정보공유 활동이 증가(51.0%)’하고 ‘스마트폰 이용이 학업 또는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데 효과적(51.0%)’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과반수에 따라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폰 이용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이용자의 97%가 향후 재구매할 의향이 있으며, 타인에게도 추천할 의향(97.4%)이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용 장소) 스마트폰 이용자는 주로 ‘이동중인 교통수단 안 (77.0%)’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외에도 과반수가 ‘실외 장소(길거리 등) (59.4%)’에서 이용한다고 응답해, 스마트폰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 맞춤형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 이용행태) 스마트폰 이용자의 10명 중 9명 이상이 인터넷 이용자이며, 하루 평균 59.4분씩 이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GPS(지도, 위치기반서비스 등)(79.4%)를 이용한 길 찾기, 이메일 (71.9%) 등 스마트폰 이용자의 52.2%는 스마트폰을 이용함으로써 웹 기반 응용서비스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앱 이용) 현재 스마트폰 이용자는 평균 23.1개의 모바일 앱을 설치 하였고, 그 중 9.1개를 이용하고 있으며, 주로 ‘정보검색 또는 일반적인 웹서핑(87.6%), 음악듣기 또는 다운로드(83.9%), 생활정보(78.1%), 길안내(77.0%), 대중교통정보(76.2%), 일정관리(74.5%) 등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료앱 이용자의 25.20%가 하루에 1번 이상 앱을 다운로드 하고 월평균 10,000원 이상 지출이 약 30%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응용서비스의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과제) 스마트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폰 전용 정액요금제 이용자의 과반수(58.9%) 이상이 추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그 중 30%의 이용자가 월평균 10,000원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스마트 모바일 강국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로 무선데이터 요금 개선(82.8%)을 가장 필요로 하였으며, 무선랜 인프라 확대(81.6%) 및 통합 앱스토어 구축(50.8)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스마트폰 이용자의 47.2%가 보안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마트 모바일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담아서 방통위는 지난 4월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 'Smart Mobile Korea Vision 2010'을 발표한 바, 방통위 홈페이지(정책정보센터/정책과제/이용자네트워크) 메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 : 'Smart Mobile Korea Vision 2010' >

스마트 모바일 산업 강국 구현을 위해 2010~2014년까지 5년간 1조 5천억원 투자하여 **4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하는 등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4.21)

1) 스마트 모바일 글로벌 경쟁력 확보

- (비즈니스 활성화 규제 개선) 민관합동의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을 구성하여 스마트폰 이용 환경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 지속적으로 추진
- (모바일 산업 경쟁력 강화) KIT펀드 약 3,700억원으로 고도성장분야, 신규 비즈니스 분야 등 3대 분야 무선인터넷 기업에 집중 투자
- (상생협력체계 구축) 무선인터넷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전략 수립, 중소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등 「무선인터넷 상생협의체」를 구축·운영

2) 스마트 모바일 대중화 및 생산적 활용

- (요금제 개선) 무선 데이터 정액제의 잔여 용량 이월, 통합요금제 도입 등
- (생산적 활용) 국가·사회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모바일 오피스, 모바일 u-Home, 교통·의료 등 공공응용서비스를 적극 추진

3) 무선네트워크 확충 및 고도화

- (무선랜 확대) '10년말까지 무선랜 이용지역을 2배이상 확대(K:78천개, SKT :1만개, LG :11천개)하여 '11년까지 무선랜 이용을 세계 3위권 이상 도달
- (WiBro 인프라 확산) WiBro 망을 2011년까지 84개 지역까지 확대하고, 주파수 신규할당을 통해 네트워크 망 고도화를 추진

4) 차세대 모바일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 스마트 모바일 활성화와 차세대를 구분하여 선택과 집중 기술개발 추진
- Open Research Center 구축 및 산학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방통위는 갤럭시S, 옵티머스, 텔레시스 등 다양한 스마트폰 보급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스마트폰 이용행태가 변화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실태조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며, 모바일 OS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앱을 구동할 수 있는 모바일 웹앱에 대한 이용실태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 : 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 요약보고서 1부. 끝.